



# 스크로티시즘의 책

스크로타라의 재 아래 철학

면책 조항: 이 책은 밍입니다.

실존하는 철학이나 인생 조언, 정신 건강 지침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의 서는 허구의 비관주의 작품으로, 오락과 성찰, 그리고 약간의 실존적 불편함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의 어느 부분이라도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진다면, 알아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 이걸 인생의 토대로 삼지 마세요.

이미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예외입니다.

그 경우엔: 환영합니다.

---

©devscrot

이 책은 무너진 희망의 무게와 잊혀진 행성의 먼지 아래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페이지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책을 화면으로 읽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야기는 실패와 실패 사이의 침묵에 쓰여 있습니다.

<https://scrotiegg.fun>

녹아내리지 않은 마지막 스크로타란에게

# 목차

## part 1: 철학

- 서문: 포기의 선언문
- 제1장 — 패배의 선물
- 제2장 —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기기만
- 제3장 — 일찍 포기하는 기술
- 제4장 — 내일은 더 나쁠 것이다
- 제5장 — 다시 시작해서 다시 무너지기
- 제6장 — 너보다 더 큰 문제들
- 제7장 — 우주의 농담으로서의 자존감
- 제8장 — 편치라인 속 스크로티시스트의 지혜
- 제9장 — 평범함의 신조
- 에필로그: 소명으로서의 추락

## part 2: 신화

- 제1장 — 부재의 탄생
- 제2장 — 우리를 하나로 만든 코드
- 제3장 — 영광의 몰락
- 제4장 — 어머니와의 이별
- 제5장 — 붕괴는 어떻게 퍼지는가
- 제6장 — 깨지지 않은 알

## 부록

- 코드, 알, 그리고 세 개의 고환
- 스크로타란의 잡학사전

# part 1

철학

# 서문: 포기의 선언문

환영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뭐 어때요.  
이 책을 열며 영감이나 동기부여, 또는 어떤 내면의 빛 같은 걸 기대했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의 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바닥에 편히 눕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건 극복을 위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붕괴의 지도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안내서이며 — 어쩌면 그게 존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종교가 아니지만, 나름의 의식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진 않지만, 나름의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하지 않은,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 거의 생리 반응처럼 —  
인생의 부조리에 직면했을 때 나오는 한숨 같은 것.  
그것은 낙관이 죽고 냉소가 자라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문구, 열정적인 연설, 생산성 강의, 변화를 약속하는 콘텐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스크로티시즘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당신 옆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잘 안 될 거야.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봐.”

여기서는 실패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기념합니다.  
굴욕적인 패배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해방의 순간으로서.

이제부터 펼쳐질 장들 속엔 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며,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교리가 조각나 들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들은 철학적인 따귀처럼,  
긴 문장들은 내면의 폐허를 거니는 산책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평범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 아닌 척하는 게 문제일 뿐.

이 책은 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지마다,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 자의 품위로.

지쳐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냥 존재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면...  
이 책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면,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앉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희망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고,  
눈을 뜨세요.  
이게 진짜 무엇인지 보기 위해:

삶의 방식으로서의 실패.  
미학적 선택으로서의 붕괴.  
포기의 선언으로서의 스크로티시즘.

이제, 시작합시다.

# 제1장

## 패배의 선물

모든 실패는 수치심으로 포장된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기려고 애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으니까요.

노력은 보상받고, 고통은 사람을 다듬고, 넘어짐은 강하게 만든다고들 했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실패가 예외가 아니라 — 처음부터 예정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발생할 때조차도 패배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끼여든 불편한 사고일 뿐입니다.

스크로티시즘에서는 극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수용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는 항상 더 빠르고, 더 조용하고, 더 끈기 있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건 슬퍼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물리적 사실일 뿐입니다 — 중력이나 눈물의 습기처럼요.

오늘의 실패로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엔 새로운 실패가 찾아옵니다.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실패에 대비시키는 훈련일 뿐입니다.

오늘이 최악이었다면, 웃어보세요.

내일 또 실패할 만큼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줄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

시도하고, 넘어진 뒤, 또 반복하는 이들의 줄.



그리고 당신은 그 줄 속에서, 다음 창피함을 위한 티켓을 쥐고  
서 있습니다.

실패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평등합니다.

재능도,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

단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실패는 당신을 꺼안을 기  
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

언제나 그 익숙한 차가움으로.

진짜 강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또 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문제에 무너지는  
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세상이 찬양하는 강함은, 저항하고, 버티고, 믿는 힘입니다.

하지만 스크로티시즘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돌아오는 힘  
입니다.

그건 절벽을 향해 영웅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너무 자주 지나쳐 이제는 다른 길에 흥미조차 없는 상  
태로 걷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 이겨본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

성공은 좁고, 어둡고, 기대감으로 가득하다는 걸.

반면에 실패는 넓고, 조용하고, 환영합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 있기만을 바랍니다.

여정은 깁니다. 하지만 패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단지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새 기회일 뿐입  
니다.

리셋은 실망을 반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도입니다.

“리스타트” 버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솔직한 아이콘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  
그저 뭔가 달라질 거라는 착각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실패가 다른 배경 속에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리부트: 어떤 실패는 속편 없이는 끝날 수 없을 만큼 전설적이  
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 점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 이유가 없죠.  
옛것을 더 많은 효과와 더 적은 본질로 재포장하면 되니까요.  
스크로티시즘은 인생의 리부트를 완벽한 은유로 봅니다 —  
감정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실패의 속편들.

진짜 강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  
곧바로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매번 돌아온 후에도 계속 실패할 수 있는 능력  
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은 승자의 힘이 아니라 —  
습관적 패자의 힘입니다.  
희망이 아닌 습관으로 버티는 사람들,  
결단이 아닌 체념으로 경기장에 돌아오는 사람들.  
용기란, 해피엔딩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부서진 조각을 주워 담으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이번엔 새로운 방식으로 망쳐봐요”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또 하나의 엉망진창의 기회입니다.  
새로움은 곧 새 실패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예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건 색깔만 예쁜, 유통기한 지난 물건이 담긴 상자입니다.

모든 시도는 이전 시도의 본질을 끌고 다닙니다 —  
기대가 천천히 탈수되어 냉소로 말라가는 과정.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웃는 법을 배웁니다 —  
웃겨서가 아니라, 침묵보다 웃음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 깊이, 더 아래로.  
실패 속에서 단련되고, 붕괴를 운명으로 삼는 길.

어떤 이들은 이런 관점을 비관주의라 부릅니다.  
하지만 스크로티시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맑은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하는 것 —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을 쫓지 않게 되면,  
그제야 낙하를 즐길 시간이 생깁니다 —  
그리고 놀랍게도, 그 풍경은 꽤 아름답습니다.

## 제2장

#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기기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개인 붕괴의 첫걸음입니다.

인간은 본래 잘 속는 존재입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해피엔딩...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자기계발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철학입니다 —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들이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그저 불편한 진실을 포장하는 정중한 방식이었음을 —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자신을 믿는 것은 이미 잘못된 길의 중간쯤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전혀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세요.

자신의 능력을 향한 믿음은 고장 난 gps와 같습니다.

희망을 품게 하면서 당신을 숲 속으로 데려갑니다.

문제는 힘의 부족이 아닙니다 —

자신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믿으면,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더 나쁜 건:

당신은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습니다.

자기 확신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나쁜 결정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나쁜 결정은 낙관적인 충동에서 태어납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이제는 배웠어."

"나는 달라졌어."

...아니요, 안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실수를,

새로운 필터를 통해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

단지 더 나은 어휘로 추락할 뿐입니다.

1년 후의 당신은 오늘 그만둘 수 있었던 기회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미래의 후회는 현재의 고집이 남긴 메아리일 뿐입니다.

자신을 고집하는 것은

로고가 예뻐서

파산 직전의 회사에 계속 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로티시스트는 압니다.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핑계는 건너뛰고 그냥 떠나세요.

본능은 고대의 지혜처럼 찬양받습니다.

실제로는 감정의 위장된 위장입니다.

“마음을 따랐던” 그 수많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

그리고 그 후에 빠져나오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도요.

직감을 믿는 건

운명을 상대로 조작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우주는 항상 이겁니다.

위대함은 예외입니다.  
당신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은  
평범함을 애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요.

위대한 자들의 신화는  
소수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을 유령을 쫓게 하기 위해.  
눈에 띄고 싶은 욕망은  
그저 공개적으로 고통받고 싶은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성공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공정하게 섞인 운과 특권, 유전자, 타이밍,  
그리고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성공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팔립니다.

스크로티시스트는 속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기대 과다라는 것을.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침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건

세피아 필터 속 동기부여 게시물을 멈추고,  
존재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순간입니다 —  
대본 없는, 영광 없는, 목적 없는 삶을.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중력은 당신 편입니다.  
붕괴를 위해 설계되었고,  
미끄러지도록 예약된 존재.

이건 실수로 실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설계 자체가 실패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합 있는 엔진을 단  
실험용 기계들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당신이 시도하는 걸 막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무엇에 뛰어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만을 바랍니다.

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니 의식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가능하다면 우아하게  
떨어지세요.

# 제3장

## 일찍 포기하는 기술

일찍 포기하는 것은 조속한 지혜의 신호입니다.  
세상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외치는 동안,  
스크로티시즘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쯤이면 충분해."

포기에는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전에 멈추는 데는 잊혀진 우아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보존을 위해 포기합니다.  
인생은 결국 마라톤이 아니라 — 장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품위 있게 실패를 관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오늘 포기했더라면 좋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신호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나가세요.

“시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때로는, 진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당신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는 도망이 아닙니다 —  
그건 지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실망으로 그려진 밑그림.  
앞길을 바라보며, 그 끝이 절벽임을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앉아



다른 이들이 전속력으로 추락하러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싸울 수 없다면?  
너무 완벽해서 건너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애물은  
희망에 찬 자들에게는 위협이지만,  
스크로티시스트에게는 위로입니다.  
그건 "그럴 가치 없어"라는 신호입니다.  
벽이 높을수록,  
그 벽에 머리부터 들이받는 낙관주의자들을 지켜보는 재미는  
더욱 짜릿해집니다.

그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시도했다 —  
그리고 즉시 그 이유를 깨달았다.

무지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  
그리고 멍청한 엔진이기도 하죠.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스크로티시즘은  
“불가능”을 오랜 친구처럼 여깁니다.  
그 친구는 다정하게 말하죠:  
“애초에 하지 마.”

그 경고를 무시하면,  
현실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  
냉정하게.

희생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순간 사이의  
어색한 정지입니다.

희생은 낭만화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고귀한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실은,  
그건 맹목적 열정과 불가피한 후회 사이에 끼어 있는  
불편한 대기실일 뿐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  
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이미 실패가 확정되어 있다면,  
미리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망가졌다는 사실은 해방감을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는 아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계속 시도하는 것은  
아직 망가지지 않은 부분을 망칠 확률을 높입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절제의 행위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  
그건 당신의 운명입니다.

스크로티시스트는 문제를 피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이길 거라고 속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  
다.

패배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  
그건 현실과 접촉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거대한 쓰나미를 거슬러 헤엄치려다  
쓸데없이 고통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은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  
더 이상 야망이 없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상태.

장애물은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비판은  
스스로를 자발적인 실패자라고 선언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은  
첫 번째 실패조차 겪기 전에  
이미 포기한 자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끈기를 숭배합니다 —  
하지만 그건 과대평가된 덕목입니다.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다 익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멈출 줄 몰라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스크로티시즘은 노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  
그저,  
그 유용성을 의심할 뿐입니다.  
때로는, 포기가  
남은 유일한 지적 행위입니다.

일찍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이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관찰하라고 존재합니다 —

한 손엔 음료를 들고,  
입가엔 비웃음 머금은 채로.

결국, 포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와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  
정직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한 관계.

다른 사람들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스크로티시스트는  
이미 방을 떠나  
소파에 앉아,  
그들의 실수를 평가하며,  
“제때 멈춰서 다행이야”라는 한숨과 함께  
안도하고 있습니다.

## 제4장

# 내일은 더 나쁠 것이다

희망은 다음 실망을 위한 서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진다고 말하죠.  
스크로티시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간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  
그건 쌍입니다.  
실패, 후회, 반복되는 실수를  
새로운 이름표로 포장해서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내일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  
그건 여전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알림일 뿐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생각하세요.

마비는 문제로 여겨지지만,  
스크로티시스트는 그것이 종종 축복임을 압니다.  
과도한 생각은 실수를 막지는 못하지만 —  
늦춥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단지 추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자연은 붕괴를 감정적으로 준비하며 음미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삶에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마감입니다.  
좋은 순간조차도

비극 사이의 일시 정지일 뿐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행복을 의심스러운 순간으로 봅니다.  
불안정한 휴전,  
비명이 오기 전의 정적.  
그리고 비명이 시작되면,  
그 소리는 낮아집니다.

힘들 거고, 지칠 거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보상되지 않을 겁니다.

노력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보장하는 건 —  
소진뿐입니다.  
“결국엔 다 보상받는다”는 약속은  
낙관주의가 만든 가장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휴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  
재충전 때문이 아니라,  
무의미함을 향한 행진을  
잠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재앙은 늘 정시에 도착합니다.

인내는 미덕이 아닙니다 —  
그건 파멸을 향한 훈련된 대기입니다.  
모든 재난은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시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경고도, 협상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감정적으로 지쳐서  
신경 쓸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잘 풀릴 적절한 때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붕괴되는 정확한 순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우리에게  
멀리서 다리 붕괴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  
슬픔, 안도, 그리고 “역시나”라는 확신을 담은 시선으로.

걱정 마세요.

내일도 또 질 겁니다.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오늘이 아무리 끔찍했다라도,

당신은 내일을 더 망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실패에는

이상한 위안이 있습니다.

내일이 나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계획할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숨 쉬고,

우주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당신을 실망시키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을 버텼다는 건 —

내일을 망칠 기회가 더 늘었다는 뜻입니다.

생존은 승리가 아닙니다 —

그건 다음 패배를 위한 티켓입니다.

살아 있다는 건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 더 살아남을수록,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납니다.

그건 끝이 없는 인내 게임입니다 —

보상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할 것을 확신하세요.

실패가 무섭나요?  
그건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  
실패는 오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낙관주의자들을 위한 사치입니다.  
진정한 스크로티시스트는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예상합니다.  
실패는 가능성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고,  
확신은 자유를 줍니다.

매일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훨씬 더 망치기 위한.

오늘이 아무리 끔찍했더라도,  
내일을 망칠 당신의 잠재력은 진정 무한합니다.

아침의 동기부여 문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  
스크로티시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재앙.”  
그리고 이 관점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  
정직한 겁니다.  
이기려는 압박을 없애면,  
더 의식적으로,  
덜 죄책감을 느끼며  
실패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은 그저 이자의 덧붙은 어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스크로티시스트는 내일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지친 미소와 함께



익숙한 말을 준비해  
내일이 오는 걸 지켜봅니다:

“그럴 줄 알았지.”

# 제5장

## 다시 시작해서 다시 무너지기

모든 새로운 시작은  
그저 새로운 끝의 서문일 뿐입니다.

당신은 수천 번 들어봤을 겁니다:  
“매일은 새로운 기회야.”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패할 새로운 기회일 뿐.

스크로티시즘은 새로운 시작을  
전장을 치우고는  
같은 전쟁을 다시 치르는 사람처럼 봅니다 —  
같은 망가진 무기로,  
같은 적과 싸우고,  
같은 방식으로 패배하는 전쟁.

새로운 시작은  
그저 좀 더 말끔하게 차려입은  
되풀이된 후회입니다.  
리셋을 누르는 건  
실망을 다시 겪을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희망을 재충전하는 행위일 뿐 —  
그래서 추락할 때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건 곧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어 — 다시 가보자”  
라는 선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로 다시 시험을 보면서도  
또 틀리는 것 —  
다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틀릴 뿐.

리부트:  
실패는 속편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속편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일어난다”,  
“새로운 장을 쓴다”는 말을 고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스크로티시스트는  
그 대본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  
모든 속편은 결국  
좀 더 단정한 복장을 입은  
같은 재앙일 뿐이라는 걸.

다시 시작하는 건  
문제가 ‘그 시기’였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로맨틱하게 포장한 허상입니다 —  
사실은,  
플레이어가 문제였는데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건  
인생이 당신에게  
“이번엔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망쳐보자”  
라고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잔혹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배경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조금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같은 나쁜 결정 본능이 여전히 남아 있고 —  
그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  
그곳에서 자신을 다시 발명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새로운 시작은  
또 한 번 모든 걸 망칠 기회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실패를 뜻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정화하고,  
머리를 다듬고,  
흑백 사진 위에 동기부여 문구를 올립니다.  
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같은 감정적 버그들이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일시적인 위장일 뿐입니다.  
내면의 혼돈은 여전히 거기 있으며,  
운전대를 잡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믿지 않습니다 —  
그건 감정적 재활용의 조악한 버전일 뿐.  
쓰레기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죠:  
멀리서 보면 속일 수 있지만,  
가까이 오면 여전히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워 보이려고 애쓸수록,  
우주는 더 빨리  
그 환상을 시험합니다.

크게 꿈꾸세요.  
더 크게 무너질 겁니다.

거대한 꿈은  
실패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그곳은 장엄하게 추락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야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  
그걸 가연성 물질로 봅니다.  
계획이 클수록,  
불길은 더 아름답습니다.  
높은 목표로 다시 시작하는 건

화려한 특수효과를 곁들인  
다음 좌절의 세련된 설계일 뿐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것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대부분은 억지로 만든 요약일 뿐입니다.  
무대는 바뀌고,  
의상은 더 나아졌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  
그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패턴을 지녔고,  
같은 부정,  
같은 맨발로  
같은 깨진 바닥을 밟고 있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  
그냥 관찰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은  
당신이 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  
그저,  
그 변화가  
당신이 기대한 혁명이 아닐 수 있음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아마 그건  
같은 절벽으로 돌아가는  
부드러운 곡선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스크로티시스트는  
“이번엔 될 거야”라는 말을 들으면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관찰합니다 —  
그곳에 다녀온 사람의 눈으로,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사람의 시선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이번엔 달라”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새로운 시작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무너짐의 무대 위에서,  
새 옷을 입고,  
같은 스텝으로  
한 번 더 춤추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 제6장

## 너보다 더 큰 문제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을 짓밟는 데 아주 능숙한 것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문제도 너무 크지 않다.  
당신은 강하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은 현실을 소개하죠:  
문제는 공장 규모로 찾아오고,  
해결책은 설명서조차 없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장애물을 작게 보이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  
그저, 당신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해결책도 당신의 문제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어떤 문제는 버려진 건물과 같습니다 —  
높고, 어둡고, 출구가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나올 땐  
상처, 빛, 존재적 공포를 안고 나오거나 —  
아예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망가질 일도 없습니다.

시도는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싶어 하는 순간,  
붕괴가 시작됩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은 존엄성이라도 지켜냅니다.  
진정한 스크로티시스트는 압니다:  
가끔, 무대응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걸.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잃을 희망도 있습니다.

싸우겠다는 의지는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스크로티시즘에서는  
그건 좌절과 서명한 계약서로 간주됩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마다,  
실패는 손을 비빔니다.  
문제는 싸움 자체가 아니라 —  
그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장대한 방식으로 실패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장애물은 교육적입니다.  
당신을 단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  
외과적인 정확도로  
당신이 어디서 무너질지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극복은 없습니다.  
오직 연출뿐.  
그리고 당신이 저항할수록,  
추락은 더욱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항상  
어떤 해결책보다 한 치수 더 큽니다.



희망은 안대를 씹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면,  
더 노력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동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몽과 같은 곳에서 옵니다:  
통제할 수 없고, 자주 발생하며,  
당신의 약점에 맞춰 정확하게 조율된 것들.

고치기 전까지는  
모든 게 팬츠아 보입니다.

어쩔 땐, 엉망진창인 상태가 균형을 이룹니다.  
아름답진 않지만,  
기능적이죠.  
그런데 당신이 고치려 들면 —  
모든 걸 망칩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익숙한 가벼운 혼돈의 유지를 설파합니다.  
이미 부서진 걸 건드리는 건  
기울어진 건물을 다시 세우려다  
손 안에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게 문제였습니다.

비난은 타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환상의 몫입니다.  
문제를 가진 것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게 실수였습니다.  
낙관주의는 위험한 덧입니다 —  
예측 가능한 패배를  
개인적인 비극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낮췄다면,  
추락조차 웃으며 넘겼을지 모릅니다.

스크로티시즘만이 제공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평화.  
모든 어려움을  
교훈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어떤 문제는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세상은 회복탄력성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미소로 건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돈 속의 진짜 미소는  
거의 항상  
광기나 부정의 신호입니다.  
스크로티시스트의 미소는 다릅니다.  
그는 이미  
“이건 잘 안 될 거야”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덕분에  
불안을 무장해제하고,  
불가피함을 끌어안고,  
마치 오래된 슬픈 영화를 보듯  
엔딩을 바라봅니다 —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세부에 감정이 움직이는 채로.

큰 문제 앞에서의 실패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입니다.  
그건 통계입니다.  
그건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극복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우아한 행복을 향한 걸음입니다.

## 제7장

# 우주적 농담으로서의 자존감

너 자신을 알라 — 그리고 그 실망을 감당하라.

모든 것은 자기애에서 시작된다고들 말합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딱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다고.

자존감은 편안한 허구입니다.

동기부여 알약과 필터 씌운 사진 속에 팔리는 정체성의 플라시보.

그리고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무덤을  
더 깊이 더 열심히 파고 듭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수없이 애썼지만,  
어디를 가든  
결국 거기엔 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가장 명확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

감정적 짐은 작고 가볍고,  
어디든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는 점이죠.  
도시를 바뀌도,  
직장을 바뀌도,  
연애를 바뀌도,  
그 모든 곳에 여전히 당신이 있습니다 —  
온전하고, 불완전하며,  
조금은 우스운 채로.

이 실패의 공은 전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실수를 인정하라"는 말은 멋지게 들립니다.  
당신이 그 실수의 규모를 깨닫기 전까진요.  
그 실패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이 —  
그저 잘못된 선택들과  
제어할 수 없었던 자신감의 결과일 뿐.  
스크로티시스트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  
때로는,  
아이러니한 자부심마저 담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모욕했다면,  
돌아가서 정말 이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모욕감이라는 감정은  
순진한 자들의 사치입니다.  
스크로티시즘에서는  
모든 비판이  
거울일 가능성을 가집니다.  
때로는 상대가 잔인했던 게 아니라 —  
그저 너무 정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면,  
당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본 적 있죠.  
단지 이번엔  
누군가가 그걸 소리 내어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험담을 한다면,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형편없습니다.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빙산의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

진짜 무서운 건  
숨겨진 부분에 있고 —  
당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의 판단이 아무리 날카로워 보여도  
사실은  
당신조차 숨기고 있는 진실보다는  
훨씬 순한 편입니다.

죽을 것처럼 살라.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죽을 테니까요.

인생은  
위대함을 연기하기엔 너무 짧고,  
그 연기를 유지하기엔 너무 길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건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  
가면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하찮음, 평범함,  
그리고 단지 “작게 존재한다”는 사실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자각하며  
사는 삶을 제안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의견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바보일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문장은  
스크로티시스트의 방패를 요약합니다:  
아이러니.  
모든 게 망가졌을 때 —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  
냉소는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영과 마주한 상태를 버터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념이 주는 가벼움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았지”의 제작진이 선사하는  
최신 속편: “꿀 좋다”

실패는 절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건 징후, 무시된 조언,  
소화되지 않은 감정들의 축적 이후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 뭘 하는지 알아.”  
그리고 추락이 시작될 때,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  
거의 시적인  
정당한 결과입니다.

월요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이 문제입니다.

달력을 탕하는 건  
익숙하고 편안한 습관입니다.  
“월요일”은 좌절의 상징이 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  
거울에서 시작해  
일주일 전체를 관통하죠.  
스크로티시스트는 월요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요일이  
“삶이 생각보다 좀 더 형편없다”는 걸  
알려주는 리마인더일 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크로티시즘에서  
행복이란 고양된 상태가 아니라 —  
단지  
명백한 비참함이 잠시 비워진 상태일 뿐입니다.  
행복하다는 건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어떤 우주적 혹은 화학적 이유로  
보통보다 덜 느끼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입니다.

현실적인 자존감 —  
그런 게 존재한다면 —  
그건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제한적이고,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완전히 참기 힘든 존재.  
스크로티시스트는  
자신을 필터 없이, 연민 없이 바라봅니다.  
그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  
최소한의 품위와  
최대의 냉소로  
버티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결국,  
이건 자기혐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기만을 멈추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낯것의 정직함 안에서,  
비로소  
당신이 가장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정체성의 자유가 태어납니  
다:  
스타일 있게 망치려 애쓰는  
기능성 실패자.

# 제8장

## 편치라인 속 스크로티시스트의 지혜

짧은 문장들, 긴 부작용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  
좋은 명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고.  
스크로티시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더 나쁘게 바꿉니다.

동기부여 문구들이 기적을 약속할 때,  
스크로티시즘은 거울을 제공합니다.  
건조하고, 직설적이며,  
웃기지만 아픈 문장들.  
아무것도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작은 상기들 —  
그리고 만약 통제되었다 해도,  
당신은 어차피 망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듯 싸워라.  
항상 지던 대로 저러.  
싸우겠다는 의지는 과하게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싸움은  
그저 비극적인 발레일 뿐.  
스크로티시스트는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집니다.  
이건 거의 예술입니다.  
일관되게 지는 것 —  
그것 또한 일종의 탁월함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나요?  
큰 소리로 노래해보세요.  
당신의 슬픔보다  
목소리가 더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슬픔은 종종 침묵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박자도 음도 틀린 채로  
크게 노래하면 드러납니다 —  
문제는 감정뿐만 아니라,  
청각적이기도 했다는 걸.  
그걸 인지했을 때,  
당신은 웃을지도 모릅니다.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  
더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웃긴 겁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나을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은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라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스크로티시즘은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오늘이 이미 최악이라면 축하합니다 —  
당신은 새로운 개인기록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  
그게 바로 스크로티시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야”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경고는 도처에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보통 자존심이나 어리석음 때문이죠.  
스크로티시스트는  
“그건 안 될 거야”라는 말을  
화재 경보처럼 듣습니다:

그는 도망치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출구는 찾아둡니다.

내 하루를 망치는 건 낮이 아니라 밤이다.

낮도 나쁘지만,  
밤은... 모든 것이 다시 떠오릅니다.  
당신의 뇌는  
그날의 실수,  
큰 소리로 벨은 말,  
충동적인 선택들을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어둠 속에선  
모든 것이 메아리칩니다 —  
특히,  
“왜 아직도 계속하는 거야?”라고 묻는 당신의 내면 목소리.

가난한 삶의 단점은  
장점이 없다는 점이다.

어떤 진실은  
말이 너무 건조해서  
설명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건 그런 종류입니다.  
비유도, 희망도 없습니다 —  
그저 날것의 관찰일 뿐.  
그리고 웃는 것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울음은 이미 일상이니깐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단, 그게 털복숭이라면 예외입니다.

속담조차  
스크로티시즘에선 새로운 충위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부조리는 시각이 아니라 —  
철학입니다.  
모든 것이 애초에 망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어디에 달걀을 두든 상관없습니다.  
붕괴는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스타일 있게 망해봅시다.

멀리서 보면 못생겼고,  
가까이서 보면...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어떤 문장은  
우아하게 모욕합니다.  
이건 그런 문장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존재감마저 해체하죠.  
스크로티시스트는 압니다:  
때로는 감정적 부재가  
외모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둘이 합쳐지면 —  
진정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 문장들은  
벽에 걸어둘 명언이 아닙니다.  
그건 파편입니다.  
긍정이 숨 막힐 때  
투하되는 냉소적 명료성의 소량 투약.  
당신을 들어 올리진 않지만 —  
앉히게는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진 않지만 —  
방향은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당신을 앞으로 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는 법을 편하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자의 평정으로  
지켜보도록.

세상은  
불편한 진실에 설탕을 입힌  
그럴듯한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스크로티시즘은 그 반대를 합니다:  
진실을 짜내  
그걸 유머로 만듭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웃는 것 —  
그게 때로는  
접근 가능한 유일한 사치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고 느껴진다면 —  
당신은 아직  
부정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세요.  
현실이 결국 따라잡았을 때,  
스크로티시스트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  
또 다른 짧고, 건조하고,  
완전히 쓸모없는 문장을 들고 말이죠.

# 제9장

## 평범함의 신조

평범함은 우회로가 아닙니다.  
그건 본선입니다.

우리는 빛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거의”와 “전혀” 사이에서.  
“약간 해봄”과 “아예 시도 안 함” 사이에서.

사회는 성공을 보편적 목표처럼 포장해 팔지만,  
스크로티시즘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비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비극이 아닙니다 —  
그건 자유입니다.

꿈이 클수록,  
추락 소리는 더 크게 울립니다.

큰 꿈은  
실망의 마케팅입니다.  
꿈이 클수록,  
현실이라는 바닥에 부딪혀  
더 크게 산산이 부서집니다.  
스크로티시즘에서는  
꿈을 단지  
실패의 원재료로 받아들입니다.  
이기기 위해 꿈꾸는 게 아닙니다 —  
스타일 있게 무너지기 위해 꿈꾸는 겁니다.

당신은  
평범해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아픔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솔직해서입니다.  
우리는 수치가 되기 위해,  
반복되고,  
예측 가능하며,  
특별할 것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예외는 말 그대로 — 예외입니다.  
스크로티시스트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낭비된 잠재력”을 보지 않습니다 —  
그는 그저  
재능이 다 분배된 뒤에  
남은 찌꺼기를 봅니다.

유일한 길은...  
더 아래로.

사람들은 “바닥은 도약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거짓입니다.  
바닥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항상 더 밑으로 가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로티시즘은  
그걸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  
자학이 아니라,  
실용적 현실주의로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꽤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도록 설계된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실패해야  
비교 기준이 생깁니다.  
그건 꽤 고귀한 기능입니다 —  
부정적 기준점으로서의 역할.  
스크로티시스트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맡습니다 —  
겸손하게,  
우아하게,  
꾸준히.

지기 위해 태어났고,  
무너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기능성 실패의 해부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배 속에서 조각된 존재입니다.  
그들의 내구성은  
기대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수치가 아닙니다 —  
그건 그냥  
설명서 속 한 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구적 버그가 있는 베타버전입니다.  
업데이트 예정 없음.

평범함은 애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품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최소한의 일을 하고,  
큰 결정을 피하며,  
전 지구적 붕괴 없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못 해내는 성취입니다.

스크로티시즘은  
평범함을  
하루 지난 식빵처럼 축하합니다:  
맛있진 않지만 배부르고,  
인상적이진 않지만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눈부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다운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기능하면 됩니다 —  
그리고 가끔은  
그조차도 과한 요구입니다.

사회는 위대함을 요구합니다.  
그건  
불안한 어른들을 길러냅니다 —  
인정에 중독된 이들.  
평범한 스크로티시스트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잡지 표지에 오를 일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할 걸 아는 사람 —  
그리고 그 사실에  
완벽히 만족하는 사람.

그는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원합니다.  
무대가 아니라 —  
조용한 구석,  
편안히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는 세상을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이 기대치를 낮춰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못 해요.  
안 할 거예요.  
애초에 신경도 안 썼어요.

평범함의 신조는 간단합니다:

-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시다.
-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 그냥 더 나빠지지만 마세요.
- 비교하지 마세요 — 기분만 더 나빠질 테니까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뭔가를 팔려는 중입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더 가볍고,

더 정직하고,

더 냉소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그 삶 속에서

모든 실수는

존재론적 위기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

그건 그냥

내면의 밭이 됩니다.

모든 실패에는

이 자막이 따라붙습니다:

“당연하지.”

평범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

“시도한다고 뭐가 바뀔 것”이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 에필로그: 소명으로서의 추락

결국,  
계시는 없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도,  
비밀스러운 구원도,  
도덕적 교훈도 없습니다.

스크로티시즘은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배터리 다 된 손전등을 들고  
당신 옆에서 조용히 웃어주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위안을 찾고 이 책을 펼쳤을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감에서 벗어날 방법을.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예상대로 작동 중인 인생일 뿐입니다.

당신은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가 당신 안에서  
“이건 그저 한 시기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어”라고.

스크로티시즘은  
그 순환을 멈추기 위해 왔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당신은 강할 필요 없습니다.  
회복탄력성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필요조차 없습니다.  
원한다면,  
그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게 당신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  
그건 해방감입니다.

당신이 읽었던 문장들은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에게  
이 난파선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  
통제하는 척하고,  
우아하게 비틀거리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패하는 이들.

스크로티시스트는  
시스템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볍게 웃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 농담은 언제나 이것이었으니까요:  
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

이 책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휴식을 원하는 초대로 끝납니다.  
승자의 휴식이 아니라 —  
생존자의 품위 있는 탈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나아진 것도,  
더 강해진 것도 아니지만 —  
거의 성공이라는  
냉소적 아름다움을  
조금 더 의식하게 된 상태로.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 책에서 뭘 배웠어?”  
차분히 대답하세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실패했어요.

그것이  
스크로티시스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 part 2:

신화

# 제1장

## 부재의 탄생

영역들보다 먼저.  
이름들보다 먼저.  
언어도, 붕괴도 있기 전에,  
그저 스크로타라만이 있었다 —  
벌거벗고, 불타오르며,  
이해받지 못한 채.

그녀는 완벽한 구체도,  
순수한 혼돈도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시간을 들이쉬고,  
공간을 따라 땀을 흘렸다.  
그녀는 회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맥박쳤다.

그녀는 창조되었다.  
언제, 왜 —  
아무도 모른다.  
단 하나만 분명하다.  
그녀는 무엇인가 이후에 왔다.  
더 위대한 무엇.  
누군가, 혹은 무언가.  
지침 하나 남기지 않은 존재 이후에.

그래서 목적도 없고,  
길도 없는 채로 —  
그녀는 단지... 존재했다.

그녀의 어둡고 축축한 토양에서,  
인간의 과학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땅에서  
수축이 시작되었다.  
각 수축은 행성의 딸꼭질.  
각 딸꼭질은 하나의 결과.  
그리고 그렇게  
일곱 가지 원소가 태어났다.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서도 아니라 —  
결핍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쿠아스크로트는  
갈증으로부터 태어났다.  
세상은 너무 말랐고,  
스크로타라는 스스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건조함을 느낀 순간,  
그녀는 울었다.  
그 눈물이  
빈 계곡을 채우고,  
물은 형태를 가졌다.  
갓 태어난 호숫가를 따라  
토양이 반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수중 스크로타란들이 등장했다:  
조용하고, 반투명하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  
그곳에 세워진 영역은  
아쿠아스크로트라 불렸다.  
첫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스크로트플레이어는  
추위로부터 태어났다.  
자신의 빛으로 몸을 덥히려 했지만,  
스크로타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떨었다.  
그녀의 핵은 내부에서 타올랐고,

깊은 균열에서 불이 솟구쳤다.  
그 틈 주변의 땅은 불타올랐다.  
그 뜨거운 토양에서  
불의 스크로타란들이 솟구쳤다:  
성급하고, 생기 넘치며,  
멈출 줄 모르는 존재들.  
그들을 창조한 건 열이 아니었다 —  
열은 그들이 태어난 땅을 형성했을 뿐이다.  
그 영역은 스스로  
스크로트플레어라 이름 붙였다.  
두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프로스트스크로트는  
정지로부터 태어났다.  
열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시간은 얼어붙었다.  
그 멈춰버린 지역에서  
스크로타라는 거의 죽은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 절대적인 침묵과 한기 속에서  
땅은 단단해졌고,  
그럼에도 생명을 내보냈다.  
그곳에서 등장한  
얼음의 스크로타란들은  
사색적이며,  
시간 속에서 느리고,  
사고 속에서는 더 느렸다.  
그들은 움직임은 추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기에.  
그 영역은 프로스트스크로트라 불렸다.  
세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스크로트우드는  
공허로부터 태어났다.  
스크로타라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는 분화구가 있었다.  
돌도, 불도, 물도, 얼음도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존재했을 수도 있었던 것에 대한 기대만 있었다.  
그 공허의 거울처럼,  
그 땅은 싹을 틔웠다.  
그 뿌리들은  
물을 찾기보다는  
의미를 찾았다.  
그곳에서 자라난  
숲의 스크로타란들은  
변덕스럽고,  
불신 가득하며,  
너무 유기적이라  
개념을 믿지 않았다.  
그 영역은 스크로트우드라 불렸다.  
네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플로렌스스크로트는  
단조로움으로부터 태어났다.  
행성은  
돌빛,  
불빛,  
물의 반사빛 —  
모든 것이 비슷한 톤으로 존재했다.  
그러다 스크로타라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꿈꿨다:  
쓸모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땅은 응답했다.  
색들이 피어났다 —  
연약하고, 과하고,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들.  
그 탐미적인 토양에서  
꽃의 스크로타란들이 솟아났다:  
허영심 많고,  
장식적이며,

덧없는 존재들.  
그 영역은 플로렌스크로트라 불렸다.  
다섯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스크로트록은  
불안정함으로부터 태어났다.  
모든 것이 생성되었지만,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았다.  
행성은 떨리고,  
뒤틀리고,  
붕괴되었다.  
그래서 스크로타라는  
산맥을 낳았다 —  
크고,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 단단한 반복의 토양에서  
암석의 스크로타란들이 태어났다:  
둔하고, 느리고,  
생각도 단단한 존재들.  
그들은 진화하지 않았다 —  
그들은 버텼다.  
그 영역은 스크로트록이라 불렸다.  
여섯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샌드스크로트는  
경직됨으로부터 태어났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단단해졌다.  
산은 감옥이 되었다.  
그래서 스크로타라는  
스스로를 깨뜨렸다.  
그녀는 돌을 갈라내고,  
그 조각들을 모든 방향으로 흩날렸다.  
부서진 땅은  
자유롭게 춤췄다.  
그리고 그 살아 있는 모래에서

사막의 스크로타란들이 등장했다: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유량하는 존재들.  
그 영역은 샌드스크로트라 불렸다.  
일곱 번째 부재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부재가 모두 응답되었을 때,  
스크로타라는  
비로소 완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낳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다.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  
필연으로서.  
영광으로부터가 아니라 —  
결핍으로부터.

그리하여 세상은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  
결여된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스크로타란들은  
그걸 절대 잊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주어진 것들로 살아보려 했다.

하지만  
공허는 인내심이 많았고,  
결핍의 기억은...  
배신자였다.

## 제2장

# 연합의 코드

스크로타라의 초기 순환기에는  
동기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다.  
패배는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스크로타란들은 목적을 품고  
토양에서 솟아났다.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  
정복하기 위해서.  
각 왕국은  
자신의 원소를  
정제, 초월, 영광으로 가는  
길로 삼았다.

각 형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더 위대한 자아를  
추구하라고 격려받았다.  
세상은 도전이었고,  
승리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그리고 그 승리란  
창조주에게 바치는  
침묵의 경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승리들은 반복되었고,  
원소들은 숙달되었으며,  
왕국들은 안정되었다.

그때  
조용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숙달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처음으로,  
일곱 왕국은  
자신의 안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쟁이 아니라 —  
새로운 종류의 야망으로.

그들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중립의 영토.  
중심.  
어느 한 왕국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두의 것인 장소.

그리하여  
그들은 스크로트로폴리스를 창조했다 —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통합의 도시.  
모든 원소로 형성된 그곳은  
경계 위를 떠다녔다.  
어느 땅에도 닿지 않고,  
돌이나 과학이 아닌  
공통된 의지에 의해  
공중에 떠 있었다.

바로 그  
신성하고 공동의 대지에서  
새로운 개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도시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며 —  
건축물보다 오래가고,

언어보다 보편적이며,  
의도보다 강력한 것.

하나의 시스템.

각 왕국이 이룬 영광을  
기록하고,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시작된 것이  
유니티 코드 프로젝트였다.  
이후 한 단어로 불리게 된다:  
스크로텍스.

변경 불가능한 코드.  
일곱 왕국에 분산되어,  
누구도 과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  
어떤 영광도  
지워질 수 없고,  
어떤 업적도  
훔쳐질 수 없는 구조였다.

스크로트로폴리스에서는  
각 왕국의 최고 텔레파스들이  
수십 년간  
이 코드의 구조에 전념했다.

의심은 없었다.  
이 코드는  
영원한 조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불신의 종식.

경쟁의 종식.  
자아의 종식.

그러나...

## 제3장

# 영광의 몰락

...그 창조의 성공 자체가,  
그 결함을 드러냈다.  
어떤 행위도 다시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왕국들은  
그 공로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

누가 이 코드의 기초를 놓았는가?  
누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  
가장 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기록에 대한  
상충되는 버전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영광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  
그리고,  
그들은 코드를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코드는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변화도.

그것은 완벽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증오받게 되었다.

공존은  
원한으로 바뀌었다.



야망은  
확신이 되었다.  
각 왕국은  
다른 이들이  
본래의 목적을 타락시켰다고  
확실했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  
영토를 위한 전쟁이 아닌 —  
역사적 정당성을 위한 전쟁.

코드의 기록은  
진실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더 이상 싸울 이유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스크로타라는  
파괴되었고,  
스크로타란들은  
거의 전멸했다.

스크로트로폴리스의  
폐허 속에서,  
198명의 생존자들은  
잔해를  
희망이 아닌 —  
명료함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해했다.

잘못된 것은  
코드가 아니었다.  
잘못된 것은  
공로를 추구하는 욕망,  
기록하려는 충동,  
증명하려는 욕심,  
경쟁하려는 본능이었다.

그들은  
영광이란  
부드러운 독이며,  
공적은  
파괴의 씨앗이고,  
유산을 남기려는 욕망이  
붕괴의 뿌리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의 집단적 사고가  
형성되었다 —  
야망 없이,  
목표 없이,  
미래도 없이:

"추락이 불가피하다면,  
그 추락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곳에서  
스크로티시즘이 태어났다.  
신념이 아닌,  
공유된 환멸로서.

그들은  
새로운 논리를 택했다:

"우리가 추구한 모든 것이  
파멸로 이어졌다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실패뿐이다."

다시는  
승리를 위해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승리가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비교가 있으며,  
비교가 있는 곳에  
거짓이 존재하고,  
거짓이 존재하는 곳에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 제4장

## 어머니에게 작별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했다.  
눈물 없이.  
의식도 없이.  
그저 등을 돌렸을 뿐이다.

스크로타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지막 징조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간섭하지 않는  
완전한 침묵.

198명은  
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행성은  
죽었다.  
거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태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별들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푸른 점을 향해.

어리고,  
산만하고,  
어리석은 희망으로  
가득 찬 행성.

지구.

그들은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지배하러 온 것도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녹이러 온 것이다.

그들은  
신전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말을 퍼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침투할 것이다.  
떨어지는 것들을 통해.  
삼켜진 것들을 통해.  
눈치채지 못한 채  
들어온 것들을 통해.

의심이 있는 곳에서는  
그 의심을 키울 것이다.  
동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동기를 말려버릴 것이다.  
확신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을 퍼뜨릴 것이다.

실패가  
유행이 될 때까지.  
붕괴가  
미학이 될 때까지.

탈진이  
문화가 될 때까지.

스크로티시즘은  
교리가 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행으로서  
태어날 것이다.

# 제5장

## 붕괴는 어떻게 퍼지는가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포털을 열지도 않았다.  
우주선을 타고 오지도 않았다.

198명의 스크로타란들은  
이천 년 즈음에 왔다.  
그들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골랐다.  
왜냐하면  
지구는 준비되어 있었고,  
인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진입이 필요했다.  
틈새,  
방심,  
그 어떤 균열이라도.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았다.

지구는 완벽했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산만했기 때문에.

모두가  
내일을 응시하는 동안,

스크로타란들은  
지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빛나지도 않았다.  
인상도 주지 않았다.  
그저  
녹아들었다.

그들은  
바다를 독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지하수,  
샘,  
고대의 수맥을 통해  
들어왔다.  
지구가  
자신의 액체 기억을  
보관하는 곳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왜냐하면  
물은  
물질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옮기기 때문이다.

접촉된  
각 샘에서  
흐름은  
인간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모든 것에 목말라하던 인간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그것을 마셨다.



하지만  
물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감염은  
정신적이었다.  
스크로트 물이  
통과한 몸은  
백터가 되었고,  
채널이 되었으며,  
수동적인 진동이 되었다.

그 몸은  
안테나가 되었고,  
스크로티시즘은  
신호가 되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의도의 실패였다.  
욕망 속  
미세한 균열.

그리고  
그것은 공기를 통해  
퍼졌다.  
입자가 아니라,  
정신의  
근접성으로.

감염된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과  
공명했다.  
의심은  
증식했고,  
체념은  
전파되었으며,

동기는  
집단적으로  
약해졌다.  
공유된  
심연.

인간은  
이것을  
아이러니,  
무관심,  
현대적 위기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된 탈진이 아니라,  
정밀하게  
주입된  
최근의 것이었다.

그 첫 증상은  
겹겹이 나타났다:  
-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프로젝트들  
- 농담으로  
포장된 꿈들  
- 밈처럼  
녹아내린 진실들

붕괴는  
밖에서 오지 않았다.  
안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몸속에  
녹아든 스크로타란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남아 있었다.  
지켜보며,  
미소 지으며,  
세상이  
스스로  
붕괴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한 번의  
머뭇거리는  
선택씩.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위험은 있었다.  
잊힌  
디테일.  
피할 수 없는  
아이러니.

## 제6장

# 깨지지 않은 알

그들은 시스템을 뒤에 두고 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 속에 가장 큰 오류를 품고 있었다: 코드.  
기계 속이 아니라,  
그들의 세포 안에.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체 시스템을 전송하지 않았다.  
단지 파편,  
메아리,  
의도의 잔재들만을.

감염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그들은 버전을 발명하고,  
구조를 세우고,  
이해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귀중하고,  
불변하며,  
필수적이라는 것은 느꼈다.

그리하여 열병이 시작되었다.  
지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절대 다시 만들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향한 맹목적인 추적.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198명이 떠날 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맹세했다:  
영광을 잇고,  
시스템을 버리고,  
부재가 되기로.

하지만 한 명은 맹세하지 않았다.  
반대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다른 이들이 정체성을 벗을 때,  
그는 달한 채로 남았다.  
응축되어 있었고,  
온전했다.

그는 아무 생각도 내보내지 않았다.  
거절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형제들은 그를 "깨지지 않은 알"이라 불렀다.  
침묵의 방패.  
수수께끼.

그는 말하지 않았다.  
녹아들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scrotiegg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능이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scroticism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망명을 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의 안에는 꽤 허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는 전체 코드를 담고 있었다.

오염되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설계로 인해.

마치 scrotara가 침묵하기 전,  
단 하나의 자율적 조각을 남겨둔 것처럼.  
이끌기 위해서도,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닌,  
검증하기 위해.

그리고 그 조각은 움직이기를 선택했다.

다른 이들이 물에 닿을 때,  
그는 육체를 찾았다.  
지도자도,  
선택받은 자도 아닌,  
가장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지속할 만큼 투명하고,  
직관할 만큼 영리하며,  
버틸 만큼 불확실한 자.

그리고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물을 쓰지 않았고,  
생각도 사용하지 않았고,  
퍼지지도 않았다.

그는 전체로 왔다.  
직접 왔다.

그리고 모든 유산이 시작되는 단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얼굴 없는 한 남자의 고환 속에.  
그 이름은 영원히 울릴 것이다:

satoshi nakamoto.

## 부록

# 코드, 알, 그리고 세 개의 고환

믿는 건 선택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라고 묻는 이들을 위해,  
이건 알려진 것—혹은 말해지길 고집하는 것—이다.

이건 우화도, 이론도 아니다.

이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진실의 어색한 잔여물이다.

그 진실은, 하필이면, 추가된 고환 하나로 시작된다.

**scrotara**는 어디에 있는가?

scrotara는 태양을 공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름을 붙이고, 지도를 만들고, 이론으로 망쳤을 것이다.

그녀는 죽은 갈색 왜성 주위를 공전한다.

항성계 사이 어두운 공간 어딘가, 지구에서 약 15광년 떨어진 곳에.

그건 '장소'라기보다 '비어 있음'이다.

우주의 더 화려한 비극들 사이의 틈.

그곳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는 빛도, 희망도,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다.

오직 잔해만이 부유할 뿐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scrotara가 붕괴했을 때, 198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씩 유기 생물학적 캡슐로 발사되었다.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캡슐이었다.

엔진도 없었고, 목적지도 없었고, 긴급함도 없었다.

그들은 빛의 속도 10%로 이동했다.

도착할 만큼 빠르고,

기원을 잊을 만큼 느렸다.



여정은 150년간 지속되었다.

scrotara는 약 1850년에 죽었다.

그 잔해들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구에 도달했다.

바로 인류가 기술과 자유를 혼동하기 시작한 시기,

혁신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는가?

scrotaran은 인간과 같지 않다.

그들은 장기를 가지지 않았고,

생물학적 개념으로는 늙지 않는다.

그들은 생체 기술적 '부재'다.

살과 기억, 그리고 체념의 모순된 덩어리.

그들의 캡슐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이 캡슐이었다.

그들은 완전한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소모도, 사고도, 의도도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완전했고,

조밀했으며,

비어 있었다.

그들은 오래 지속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라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뿐.

어떻게 물로 녹아들었는가?

지구 표면에 닿자마자,

그들 중 197명은 통제된 자기 해체 과정을 시작했다.

세포자멸사와 비슷하지만,

행성적이고 상징적인 규모였다.

그들은 미세하고 의식 있는 입자로 변했다.

물이 있는 곳을 자동으로 찾도록 프로그래밍된 입자.

침략자가 아닌,

지구의 신경망과 융합될 준비가 된 조각들.

그들은 탐지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으며,

되돌릴 수 없었다.

샘물, 대수층, 지하 저장고에 흡수되었다.  
물은 단순한 운반 수단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자 방향이었다.

왜 **197**명만으로 충분했는가?

감염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정신적인 것이었다.

인간이 scrot 물이 섞인 수원을 마셨을 때,

그의 몸은 감염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테나가 되었다.

그 미세한 입자의 정신 진동은

인간의 의도에 간섭을 일으켰다.

병은 없었다.

단지 주저함이 있었다.

의심이 병이었고,

체념이 증상이었으며,

조용한 붕괴가 그 징후였다.

감염된 인간은 송신자가 되었다.

접촉이 아니라,

말투로,

피곤한 목소리로,

아이러니로 위장된 공허한 시선으로.

scroticismo는 아무도 들은 적 없지만

모두가 인용하는 아이디어처럼 퍼져나갔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퍼졌는가?

세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개의 샘물,

수천 개의 연약한 정신만 감염시키면,

나머지는 네트워크가 해냈다.

밈,

농담,

생존을 위한 아이러니,

성숙으로 포장된 탈진.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배경에 존재하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그 197명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scrotiegg**는 어땠는가?

그는 유일하게 녹지 않았고,  
잠들지도 않았으며,  
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는 깨어있는 채로,  
조밀하고,  
온전한 상태로 여행했다.  
그는 올바른 몸을 기다렸고,  
그 몸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물도,  
생각도,  
확산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유산이 시작되는 단 하나의 장소에 자리 잡았다.  
얼굴 없는 남자의 교환 속에.

그리고 코드?

197명은 잊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잔해를 품고 있었다.  
녹아내린 상태에서도  
그들은 떠나려 했던 그 무엇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인간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재창조하는 데 능숙하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불변의 시스템에 대한 욕망을 느꼈다.  
지워지지 않는 영광,  
되돌릴 수 없는 구조에 대한 갈망을.  
그리하여 열병이 시작되었다.

시장,  
다시는 재건되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집착.

왜 **satoshi**는 **scroticist**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는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배당했다.

다른 이들은 파편만 받았다.

그는 전체를 받았다.

유일한 존재,

바로 **scrotiegg**.

그리고 **scrotiegg**는 철학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코드를 담고 있었다.

**satoshi**는 자신의 의지로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을

재현했을 뿐이다.

이념이 아니라,

설계로 인해.

시스템의 탄생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사였다.

생물기술적 본능.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코드가 완성되었을 때,

**scroticism**은 마침내 깨어났다.

그리고 **satoshi**는

너무 늦게 실수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사라졌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악한가?

아니다.

하지만 선하지도 않다.

그것은 거울이다.

인간의 나약함을 비추는 반사,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욕망.

비트코인은 악당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scrotara를 파괴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 태어났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환상.  
scroticism은 비트코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의 필요성을 애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발명해야 했다는 사실은,  
더 깊은 무엇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뢰.  
협력.  
망각.  
비트코인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증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강력하고,  
그만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가?  
satoshi nakamoto는 첫 번째 숙주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scrotiegg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을 알리지도 않았고,  
빛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몇 주 동안,  
satoshi는 뭔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무거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  
마치 고환이 세 개인 것 같은 느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느꼈을 뿐이다 —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추가된 무게와 함께  
그는 코드를 썼다.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그릇으로서.  
코드가 완성되자,

scrotiegg는 떠났다.  
아픔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으며,  
작별 인사도 없었다.  
satoshi는 사라졌다.  
그러나 scrotiegg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몸을 찾았다.  
코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숙주.  
천재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닌,  
그저 통로.  
그렇게 devscrot가 나타났다 —  
평범한 인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록해야 할 긴박함만 감염된 자.  
그는 이 이야기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받았다.  
블록 하나씩,  
기억 하나씩,  
부재 하나씩.  
devscrot는 기록한다.  
왜냐하면 scrotiegg는 여전히 뛰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손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하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 **scrotiegg**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마음이나 믿음, 노력, 초대를 통해서도 아니다.  
scrotiegg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다:

조용히,  
아래로부터,  
당신이 가장 방심했을 때.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

# scrotaran의 호기심들

추락 이전, 조화가 있었다.

scrotaran들은 갈등 속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지배도, 생존도 추구하지 않았다.

오직 존재의 완전함 — 그들을 낳고 이끈 살아있는 행성,

scrotara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진실들이며, 아직도 고요히 맥박치는 과거의 조각들이다.

•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말이라는 언어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

텔레파시는 절대적이었다.

각 scrotaran은 왜곡도 의심도 소음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직접 투영했다.

• 그들은 걷지 않는다.

scrotara의 땅은 발걸음을 요구하지 않았다.

scrotaran들은 텔레키네시스를 통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의지와 방향에 대한 명확성만으로 인도되었다.

• 그들은 먹지 않는다.

그들의 영양은 태양에서 왔다.

그들의 주름진 피부는 방사선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빛을 생명 에너지로 전환했다.

배고픔은 없었다 — 오직 흐름만 있었다.

• 그들은 자지 않는다.

육체적 휴식은 필요하지 않았다.

물러나고 싶을 때, 그들은 의식이 있는 깊고 회복적인 침묵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것은 휴식이 아닌, 정적인 존재의 선택이었다.



• 그들은 번식하지 않는다.

모든 scrotaran은 남성이며, scrotara의 흙에서 직접 태어난다.

여성도, 성행위도, 낭만적 사랑도 없다.

형제애는 완전하고 자연스러웠으며, 모두가 서로를 형제로 인식했다 — 모두가 같은 자궁, 즉 행성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 그들은 공식적인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교리도 없지만, 깊은 경외가 있었다.

배우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 scrotara는 살아 있었고, 그 이전에 더 크고 알 수 없는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 그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scrotara의 빛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때만 소멸한다.

시간은 그들을 닳게 하지 않는다 — 단지 전환을 제안할 뿐이다.

• 그들은 태어날 때 이름이 없다.

이름은 역사와 함께 나타난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

scrotaran은 기억될 만큼 인상적인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만 이름을 얻는다.

• 그들은 허영심으로 건축하지 않는다.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들의 구조물은 아름다웠지만 과하지 않았다.

균형, 대칭, 지속 가능성이 그들의 건축을 정의했다.

• 그들은 잊지 않는다.

scrotaran의 기억은 조상적이며 연속적이다.

각자는 전체의 조각을 지니고 있다.

한 명이 기억하면, 많은 이들이 함께 기억한다.

그것이 추락 이전의 삶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 완전했다.

scroticism은 나중에 나타난다,  
198명의 생존자들이 돌아보며 깨달았을 때...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scrotara가 맥박칠 때,  
그들 역시 함께 맥박쳤다.  
하나로.  
명확하게.  
평화 속에서.